

『율리시즈』의 “에스”: 화해를 향한 굴복과 긍정

김 주 석

I

『율리시즈』(*Ulysses*)의 18개 장 중에서 마지막 장인 “페넬로피”(Penelope)장은 몰리(Molly)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글에서 볼 수 있는 구두법이 배제되어 있다. 이 장은 몰리가 지브롤터(Gibraltar)에서 살았던 어렸을 때 기억부터 시작하여 바로 전 날의 보일런(Blazes Boylan)과의 정사 장면을 포함한,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느낌과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그녀의 감각에 대한 내면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몰리의 독백은 “에스(yes)”로 시작되어 “에스”로 종결을 맺고 있다. 『율리시즈』작품 전체에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찾아서 모아보면 활자화된 “에스”는 대략 350 여 번 사용된다. 각 장마다 길이와 서술되는 기법의 차이가 있지만, 『율리시즈』 전체가 18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 장의 평균 “에스”의 사용이 대략 20여 번 안팎으로 계산될 수 있다. 작품 속의 대부분의 이 단어 사용은 하나의 언어로서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평범한 일상 대화에 쓰이는 것이거나 단순한 언어사용에 있어서 상투적인 의미의 “에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할 만하게 “페넬로피”장에서만 “에스”로 글의 첫 어구가 시작하면서 마지막 어구를 “에스”로 끝나는 것, 그리고 88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어 각 장의 평균보다 70여번 더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은, 몰리가 단순히 “에스”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개인적인 언어사용의 상투성을 넘어서 보다 깊은 의미를 있음을 짐작케 한다. 조이스(James Joyce) 자신은 버전(Frank Budgen)에게 “페넬로피”장을 쓰면서 보낸 편지에서 여성의 성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because', 'bottom', 'womb' 그리고 'ye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yes"의 의미는 'cunt' 즉 'sex'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Budgen 1960, 263).

또한 버전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괴테(Goethe)의 파우스트(*the Faust*)가 말한 "Ich bin der [sec] Fleisch der stets bejaht"를 패러디하여 "I am the flesh that always says yes"로 말하면서 "affirm"을 "yes"로 바꾸어 몰리의 "예스"에 대한 태도를 조이스는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러스(Wallace)는 조이스가 주장한 "yes"가 여성의 '순종(acquiescence)', '이완(relaxation)' 그리고 '모든 저항의 종말(the end all resistance)' 즉,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여성의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Wallace 217-18). 월러스는 작품 속의 몰리는 오히려 영원한 남성상을 구축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몰리의 "예스"는 여성적 순종의 표시가 아닌 자기 충족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작품 속에서 몰리는 'how he kissed me under the Moorish wall and I thought well as well him as another and then I asked him with my eyes to ask again yes...' (U18. 1604-05)라고 회상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키스의 경우는 옛 애인 멀비(Mulvey)에 대한 언급이며, 두 번째 '그이'는 결혼 제의 직전의 블룸(Leopold Bloom)에 대한 언급이며, 세 번째 '그이'는 결혼 후의 블룸에 대한 언급이다. 이처럼 몰리는 키스, 섹스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모두 한꺼번에 "예스"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몰리는 수동적인 존재 인 것만도 아니며 남성상을 구축하는 인물만도 아니다. 몰리는 여성적인 성향과 남성적인 성향 모두를 포함하여, 인위적인 남녀의 경계를 뛰어넘는 포용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몰리의 그러한 특성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언어가 "예스"이다.

"Yes"는 1장(Telemachus)에 6번, 2장(Nestor)에 10번, 3장(Proteus)에 8번, 4장(Calypso)에 11번, 5장(Lotus-eaters)에 19번, 6장(Hades)에 25번, 7장(Aeolus)에 18번, 8장(Lestrygonians)에 21번, 9장(Scylla & Charybdis)에 13번, 10장(Wandering Rocks)에 27번, 11장(Sirens)에 27번, 12장(Cyclops)에 15번, 13장(Nausicaa)에 11번, 14장(Oxen of the Sun)에 4번, 15장(Circe)에 30번, 16장(Eumeus)에 9번, 17장(Ithaca)에 3번, 18장(Penelope)에 88번 나온다.

1장에서 6번 나오는 "예스"는 모두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10번 나오는 "예스"는 9번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된 것이고 1번만이 독백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

이 1번이고 나머지가 독백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앞의 3개의 장들은 스티픈(Stephen Dedalus)의 여정으로 처음 두 장은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와 독백이며, 특히 3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스티픈의 독백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4장에서 15장까지는 블룸의 여정이다. 이 12개장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와 독백 속에서 나오는 “예스”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이고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예스”의 사용도 간혹 보인다. 4장에서 전체 11번의 “예스”사용 중에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되는 예는 4번, 독백 속에서 5번 그리고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용이 2번이다.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는 블룸의 의식은 이 단어의 사용을 각각의 범위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아내 몰리와 대화 속에서, 자신의 독백 속에서 그리고 성적인 의미를 보이는 사용에서 “예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나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9번의 사용 중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5번, 독백 속에서 11번 그리고 성적인 의미를 가진 사용은 3번이다. 6장에서는 장례식장의 음울한 분위기와 함께 25번의 “예스”사용 중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의 사용이 14번, 블룸의 죽음에 대한 명상과 함께 사용되는 독백 속에서 10번 그리고 딸인 밀리(Milly)가 성숙한 여인으로서 이제 남자와 사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적인 의미를 보이는 “예스”의 사용이 1번 있다. 7장에서는 신문사에서 사무적인 장면 때문에 18번의 사용 중 6번이 대화 중에 그리고 2번만이 독백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8장에서는 식당에서의 주요 독백이 이 장을 많이 차지하므로 전체 21번의 사용 중에 대화에서 사용이 7번, 독백에서의 사용이 12번, 그리고 블룸의 독백 속에서 몰리와 보일런 사이의 통정에 관한 상상 가운데서 그리고 음식을 생각하던 블룸이 최음제를 떠올리면서 “예스”를 성적인 의미와 연결 시켜 사용한 것이 각각 1번 씩 즉, 2번 사용되고 있다.

9장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대화 장면이 주를 이루므로써 전체의 13번의 사용 가운데 대화에서 9번, 독백 속에서 3번 그리고 “러브”(love) “예스”의 의미에 있어서 비교와 동시에 성적인 의미와 연관된 사용이 1번이 있다. 10장에서는 각 19개의 비네트(vignettes)들이 도시의 거리의 풍경을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7번의 사용 가운데 대화 속에서의 사용이 9번, 독백 속의 사용이 18번 일어나고 있다. 11장은 오몬드(Ormond) 호텔의 콘서트 룸을 배경으로 음악과 노래에 관련된 장이다. 이 장은 전체 여정 중에 중간 부분으로서 전체 27번의 “예스”사용 중에 일상 대화에 관련된 사용이 5번, 독백과 관련된 사

용이 18번, 그리고 성적인 의미를 갖는 사용이 4번 있다. 12장은 키어먼(Kierman)주점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으로써 전체 사용 15번 모두가 대화에서 사용되고 있다. 13장에서는 전체 11번의 사용 모두가 독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티(Gerty MacDowell)와의 관음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는 극도로 자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장에서는 병원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으로써 4번의 “예스” 사용 모두가 독백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매음굴의 환각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30번의 사용 중 24번이 대화 중에, 5번이 독백 중에 그리고 1번이 브린 부인(Mrs. Breen)의 환상 중에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울리시즈』의 마지막 3개 장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그러나 16장과 17장은 블룸과 스티븐의 종국의 장이며, 16장은 이 작품 전체를 통괄하면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나 구속이 없는 물리의 장인 동시에 전체 『울리시즈』의 종국이다. 16장에서는 9번의 사용 가운데 대화에서 사용이 5번, 독백 속에 사용이 4번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전체 단 3번의 사용 모두가 독백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인 “페넬로피”장에서는 전체 88번의 “예스”사용 모두가 독백 속에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예스”의 사용이 성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의 성적인 의미로 가장 강렬하게 연관 지어 표현되고 있는 곳은 “페넬로피”장 말미의 두 부분이다. 이상 345번의 “예스”의 사용을 조이스는 단순히 기계적이고 도식화된 의미로 일상적인 대화, 독백 속의 체념 그리고 성적인 의미 3부분으로 구분하고 생각하며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류는 조이스의 『울리시즈』에서 “예스”의 일반적인 사용의 구체적 사실과 각 사용의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예스”의 의미를 추정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분류하였다.

우선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예스”의 사용에 대해서는 달리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독백에서의 “예스”의 사용은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로 살펴건대 화자 자신이나 나레이터 혹은 arranger¹⁾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확

1) 헤이먼(Hayman)은 『울리시즈』에서 화자와 서술자만 가지고 모든 『울리시즈』의 담론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The Arranger의 존재를 제안하였다. 그는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설자인 나레이터도 아닌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 Arranger는 점점 많아지는 작품 내용을 분명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을 다지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적 인 의미로 사용되어 지는 용례는 조이스 자신의 편지를 근거로 “페넬로피”장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사용에서 여성 혹은 성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사용되어 지는 “예스”의 모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예스”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러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폭스(Cheryl Fox)는 “러브”와 “예스”에 대한 비교와 주제를 갖고 상당히 재치 있는 판단과 비교를 하고 있다. 그는 “러브”란 것은 남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남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있는 이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스”는 자신과 남에게 굴복하고 남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러브”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799). 또한 폭스의 “예스”에 대한 생각은 “사이클롭스”장에서 볼 수 있는 블룸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룸은 사랑을 ‘증오’와 반대되는 의미(U12. 1485)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블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증오뿐만 아니라 권력과 모욕에 대한 반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은 사랑이란 굴복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일부의 부정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인생이란 증오의 반대이며, 부인(nullification)의 반대이기에 결국 인생은 확신이며 “예스”라고 말한다. 즉 “예스”는 증오가 없으며, 부정하지 않고서 확신을 가지는 인생의 대한 긍정적 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Fox 800).

“예스”는 자신 속에 자신과 상대방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 존재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에 자신의 우월성이나 대립성을 포기하는 굴복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우월의 의미를 부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굴복의 의미와 동시에 자신 속에 상대방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과 확신의 의미가 함께 한다. “예스”는 보통의 인간에 속하는 것이다. “러브”와는 달리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랑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겸허한 굴복과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확신의 의미로 “예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러브”와 같은 헌신적이고 지고한 의미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너와 나의 존재를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인정한다. 언어의 사용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조이스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순한 “예스”의 의미에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이제는 상대방에게 굴복함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미

래를 확신하는 의미로 더욱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예스”가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로서 사랑이란 단어보다도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서 성행위나 그와 비슷한 에로틱한 의미로 함께 기술되어 진다면, 『울리시즈』가 불륜과 몰리 두 부부의 애정과 성에 관련된 대 여정이며, 성에 관련되어 개인의 자유와 삶의 의미의 탐색을 통한 두 부부의 대 화합을 그리는 노래라고 일관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긍정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합일된 행위 즉 성행위(Yes)를 통한 남녀의 결합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행위이다. 또한 남녀의 성행위는 남자가 여자에게 굴복하고 여자의 커다랗고 따뜻한 자궁(womb)에 머무름을 나타낸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모태로서 그리고 생명의 터전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버전은 몰리야 말로 “마음을 고되게 하는 어떤 불확실도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양심의 가책(Agenbite of Inwit)도 없는 지역, 거기에서 어떤 유감도, 어떤 비난도, 어떤 양심도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죄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자로서의 몰리의 우월성과 자연성을 격찬했다(Budgen 1960, 265). 이러한 여성적 우월성과 자연성 그리고 생명 창조의 대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비옥함을 생각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굴복하고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두 인생의 긍정적인 삶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며 재 탄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여성을 뜻하는 “예스”는 이성(opposite sex)과의 합일을 나타내며, 두 이성이 하나 되는 의미에서 다시 두 이성간의 화해(reconciliation)를 상징한다. 따라서 두 이성간의 결합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육체적인 후손의 생산의 의미와 함께, 두 이성의 정신적 재생(rebirth)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페넬로피”장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몰리의 “예스”의 의미는 전체 『울리시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주인공들의 화해를 보여주고 있어 『울리시즈』가 하나의 회극이 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예스”의 의미는 전체 『울리시즈』의 기나긴 여정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굴복을 하며,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는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예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보다 더 확인할 수 있다.

II

블룸은 자신과 아내의 동물적인 욕정에 의하여 생겨난 아들 루디(Rudy)가 태어난 지 11일 만에 죽게 되면서, 동물적인 욕정에 의하여 잉태된 생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이내 블룸에게 있어서 아내 몰리와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어 10여 년이 넘도록 아내 몰리와 완전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한다. 심지어 그는 몰리와의 잠자리에서조차 그녀의 다리 쪽에 머리를 돌린 채로 잠을 자곤 했다. 몰리는 개들의 교미를 보고 처녀 시절의 애인인 멀비(Mulvey)와의 에로틱한 기억을 생각했기 때문에 루디를 임신했던 것이다. 스티븐의 말대로 ‘한 순간의 맹목적 발정’(blind rut)이 블룸으로 하여금 부권을 잃어버리는 근원이 된 것이다. 블룸은 “레스트리고니언”장에서 데이비 번(Davy Byrne)식당으로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루디가 죽은 후로는 결코 그것을 다시는 좋아할 수가 없었어”라며 루디를 잃은 후의 자신과 아내와의 성적 결합의 불능을 고백한다. 브리빅(S. Brivic)의 이론을 빌리면 “정신분석의 표준 형식들 가운데 유아는 자주 남근(phallus)의 상징이 된다. 그는 이미 신경증인 블룸에게 루디의 죽음은 남근(penis)의 파괴를 상징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Brivic 157). 루디의 죽음에 의한 상실감으로 블룸은 몰리에게서 성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블룸이 몰리와의 성적 교접을 아들과 후손을 잉태하는 행위로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로서의 아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에게서 몰리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고, 특히 아내 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생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생의 권리와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내와 완전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아내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아내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확신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블룸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는 계속 인생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보일(Boyle)은 하지만 블룸이 성적 불구는 아니라고 본다. 그는 “페넬로피”장에서 블룸이 여전히 피임 기구를 소지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몰리의 계획을 판단의 근거로 대고 있다. 블룸은 성적 불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는 고통을 가져다줄 성적 결합을 피하기 위해서 일 것으로 추측

하고 있다. 블룸은 여전히 루디의 죽음의 고통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Boyle 416). 그는 물리와 보일런과의 결합에 대한 생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신의 몸에 어떤 성적 충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낀다. 이는 정상적인 아내 물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이며 메조키즘적인 반응이다.

Tenderness it welled: slow, swelling, full it throbbed. That's the chat. Ha, give! Take! Throb, a throb, a pulsing proud erect. (U11. 701-02)

블룸 스스로도 자신의 남성이 상상력에 의한 성적 자극에조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의 남성으로서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성적 관계의 불모는 그의 정신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보일런과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그는 아내 물리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 결핍되어 있다. 블룸은 “로터스-이터스”장에서 원형 가스 탱크와 리피(Liffey)강에 정박한 커다란 외국 상선 그리고 수많은 크레인들이 자리한 존 로저슨(John Rogerson's) 부두를 따라 걸어가는데, 이 곳은 더블린의 상공업 지대로서 다소 지저분하고 복잡한 곳이다. 그는 이곳을 출발하여 터키탕까지 가는 도중에 세 번 멈춘다. 그 중 하나가 우체국에서 만성 교회(All Hallows)까지인데 그는 신비하게도 의문 부호(?) 형태로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우회는 정상적인 지름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자신의 펜팔인 마사 클리포드(Martha Clifford)의 편지를 남몰래 읽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녀는 블룸을 사로잡는 요염한 칼립소(Calypso)인 셈이다. 마사의 편지는 블룸의 마음을 보일런과 물리로부터 떠나게 하며 자신의 실질적 무능을 잊게 한다. 이 장의 모든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편지는 고통을 달래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녀의 심술궂은 편지의 관음증과 자극적인 간지럼으로 블룸은 행복할지 모른다. 그녀의 편지는 또한 가학피학성적(sadomasochistic) 환상으로 넘친다.

“Angry tulips with you darling manflower punish your cactus if you don't please poor forgetmenot how I long violets to dear roses when we soon anemone meet all naughty nightstalk wife Martha's perfume.” (U5. 264-66)

이 구절에서 ‘튤립’(tulips)은 두 입술(two lips), 남자의 꽃은 블루의 꽃, ‘선인장’(cactus)은 남근을, ‘물망초’(forgetmenot)는 성교 후의 나른한 행복감, ‘제비꽃’(violets)은 창녀의 색깔, ‘장미’(rose)는 거티(Gerty)의 월경 등, 블루는 마사와의 정신적 사통(forcination)의 증후를 드러낸다. 블루는 마사와의 관계에서 안전을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D]o not deny my request before my patience are exhausted.”(U5. 253-54) 라고 편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마사의 호색적인 암시 속에 숨어 있는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외설적 언어에 대한 마사의 음란스런 경멸에 블루는 흥분을 느낀다. 또한 블루는 마사의 편지를 그의 안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이 때 편지에 장미를 꽂았던 핀을 뽑아 버린다. 그는 이런 애정 관계에서 가시에 찔릴까 봐 겁내고 있으며 가시 없는 장미를 바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마사는 관음증을 유발하는 노리개 감이지 진정으로 육체적인 남녀 관계를 유지할 마음 자세는 아닌 것이다. 마사는 충족되지 못한 자신의 성적 만족을 보상하는 도구이다. 그러면서 몰리에게 그렇듯이 마사에게도 적극적으로 남자답게 앞에 서지 못한다. 그의 이러한 나약함은 아직 여자에게 굴복할 만한 정신적 심리적 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블루가 마사의 편지를 보기 위하여 정상적인 자신의 순행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은 블루의 인생에서 비정상적인 일탈이며 항해 중에 방황하는 오디세우스(Odysseus)를 의미한다. 그리고 편지를 자신의 모자 집에 집어넣고 다니는 것은 편지의 상대자인 마사를 마음이나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아닌 머리 즉 이성으로 마사를 생각하고 있음이다. 그가 아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 동시에 마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서 편지만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아내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도 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블루에게 있어서 아내 몰리와 화해를 하지 못하여 비정상적인 이성에 대한 행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거티와의 관계이다. 블루는 샌디 마운트(Sandy Mount) 해변에서 거티를 보게 된다. 그는 관념적인 이성으로서 거티와의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닌 관음적인 성행위로서 마스터베이션을 자행한다. 블루가 “나우시카”장에서 거티와 관련하여 행하는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의미를 브라운(Richard Brown)은 센(Senn)이 하트(Hart)와 헤이먼(Hayman)의 『Critical Essay』에서 말한 것을 인용한다. “블루는 성적 만족의 가장 외로운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일은 자신의 집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훨씬 생동감 있고

훨씬 서로간에 만족을 주는 포옹에 대한 그의 인식에 의하여 보다 더 빠아픈 일로 되어 진다”(Brown 60). 여기서 언급되는 보다 생동감 있고 보다 만족을 주는 포옹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폴리와 보일런의 부정행위를 생각하며 언급한 것이다. 블룸의 행위는 어쨌든 상대방과의 완전한 육체적 결합이 없이 관념과 환상에 의해서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서만 생각하여 취해진 행위이므로 진정한 굴복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이나 확신은 없다. 이는 결국 진정한 남녀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의미 없이 방출해 버린 블룸의 정액은 생산 없는 불모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스터베이션은 이성에 대한 굴복과 이성에 대한 긍정이 없는 확신을 갖지 못한 행위의 또 다른 반영이다. 즉 마스터베이션이란 자신에게만 속하는 것으로서 이성에 대한 직접적 굴복의 행위라든지 이성 존재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 없는 혼자만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이다. 블룸은 적극적인 인생의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기보다는 숨어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상할 ‘구경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성이 결국 폴리로 하여금 블룸에게 쉽게 굴복하지 못하고, 블룸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대지(Gea-Tellus)²⁾는 자신의 발을 적극적으로 일궈 주고 씨를 뿌려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꺼이 자신을 기꺼이 굴복(yield)하고 씨앗을 배양시키며 생산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블룸이 직접 행동하는 ‘행동자’이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항해를 다 마친 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룸은 루디에 대한 죄의식, 늙었다는 무력감 그리고 새로운 아들의 죽음이 있을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 속에 방황하면서 대지를 향해 영웅적인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과의 무언의 관계를 마친 후, 떠나가는 거티의 발걸음이 이상했다. “Tight boots? No. She’s lame! O!”(U13. 771) 거티는 절름발이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가장 우아하고 청순한 ‘여성을 표방한 가장’(masquerade of femininity)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전까지는 진정으로 ‘여성다운 여성’(womanly

2) Gea-Tellus는 Ithaca장에서 언급되는데, 하나의 행성(여성)으로서 그 위에 다른 위성(남성)이 돌고 있는 천문학에 비유되는 표현이다. 여기서 행성은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생명의 지구이다. 따라서 지구는 회랍어로는 Gea 또는 Ge이요 라틴어로는 Tellus이다. 이는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이며, 지중해의 다산의 여신으로 선사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문명의 초기에 있어서 올림푸스의 남신들을 지배했었다.

woman)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였으며, 독자들도 그와 같은 여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실체는 절름발이 불구였던 것이다. 그녀의 우아한 동작도 그리고 시시 카프리(Cissy Caffrey)의 월가다 같은 모습과 대조를 보이던 품위 있던 모습도 결국은 그녀의 불구에서 오는 한 단면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에게 ‘남자다운 남자’(manly man)로 보였던 불륨이 사실은 ‘여성적인 남성’(womanly man)인 것과 다를 바 없다. 서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실체를 모르는 남녀 간에 자신의 성적 욕구와 심적 좌절감을 보상하고픈 대상으로 서로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에스”의 성적 관계는 없었다. 그들이 비록 일순간 성적 환희에 젖어 있었지만, 불륨의 마스터베이션은 생산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들 서로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굴복하고 긍정하는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거티의 절뚝거림은 현실에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숨어서 일시적인 환상과 감정으로 낯선 여인에게 몰입했었던 불륨의 정신과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 절뚝거리고 있음을 투영하고 있다.

불륨의 거티에 대한 마스터베이션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불륨의 피임 기구 소지이다. 불륨의 피임 기구의 소지는 『율리시즈』중 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타카”장에서 불륨의 서랍 속에는 “일부분이 풀려 있는 고무 기구 두 개”(U17. 1804)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두 개의 피임기구중 일부분이 풀려 있다는 것이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썬시”장에서 환각 중에 나타난 욕실의 넘프가 불륨의 성적 행위를 비난하며 ‘고무기구’(Rubber goods)(U15. 3256)를 내민다. 그리고 “페넬로피”장에서 몰리는 남편의 셔츠를 조사해 볼 생각을 한다. 몰리는 평상시에 불륨이 지갑에다 피임 기구(French letter)를 갖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U18. 1235). 피임 기구의 소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회피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또 하나의 도덕적인 죄가 될 수 있다. 우선 불륨이 루디의 죽음 이후 물리와 관계를 갖지 못했던 내용이 “이타카”장에서 불륨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다.

complete carnal intercourse, with ejaculation of semen within the natural female organ, having last taken place five weeks previous, viz. 27 November 1893, to the birth on 29 December 1893 of second (and only male) issue,

deceased 9 January 1894, aged 11 days, there remained a period of 10 years, 5 months and 18 days during which carnal intercourse had been incomplete, without ejaculation of semen within the natural female organ. (U 17. 2278-84)

완전한 성적 교섭 후에 갖게 되는 정액의 여성 성기 내에 방출이 10년 반 가깝게 없어 왔던 블룸에게 피임 기구의 소지 문제는 그의 ‘생산력의 한계’(limitation of fertility)를 생각해 보게 한다. 레빈(Harry Levin)은 “레스트리고니언즈”장에서 블룸이 우울한 생각 중에 ‘루디가 죽은 후로는 다시는 그것을 좋아 할 수가 없었지’(U8. 610)라고 말했던 부분과 함께 위의 “이타카”장에서 보여주는 블룸의 모습을 보고 그를 가리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열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Levin 110). 레빈은 “레스트리고니언즈”장에서 말한 부분의 ‘it’가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가리키는지, 아이를 갖는 일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들이 살던 롬바드가(Lombard Street)의 집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타카”장에서 블룸이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 블룸은 아내와 중절 성교(coitus interruptus), 커닝링구스(cunnilingus)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타카”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년간은 말 그대로 완전한 정액을 여성의 성기에 사정하지 않은 금욕의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블룸의 콘돔의 소지 의도는 그가 아이를 가질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아이 갖기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의 콘돔의 소유 문제는 아내와의 아이를 더 갖지 않을 의도였든지, 다른 여인과의 부정한 관계 모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지 간에 블룸이 아이를 갖길 회피하고자 하는 그의 정신적 위축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의 완전한 결합 후에 여성의 성기에 방출하는 성스러운 화합의 행위를 그는 회피하며 또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III

블룸은 외견상 아내 물리에게 굴복과 긍정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화해를 모색하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부 관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생명의 잉태를 위한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위의 결여로 인하여 물리에 대한

진정한 내적 굴복과 긍정적 확신을 갖지 못해 왔다. 그 동안 블룸은 루디의 죽음으로 인한 거세 콤플렉스에 걸려서 여성적인 남성(womanly man)으로서 직접적인 성적 교접을 피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아내가 보일런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시점에서는 스스로도 많은 여인들(거티, 마사, 길거리에서의 멋진 여인, 퓨어포이 부인, 브린 부인, 벨라 코헨 등)을 통하여 하나의 남성으로 다시 성장한 것이다. 이런 블룸의 방황스런 여성 편력은 연옥을 거쳐 정화되어지는 블룸의 수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는 그 동안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위축의 원인이 되었던 육체적 아들 루디의 죽음을 대신할 정신적 아들인 스티븐을 찾았다. 게다가 물리의 부정으로서 그 동안 자신이 해주지 못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죄의식이 보상받았을 수도 있다. 또한 아내의 부정을 생각할 때 흥분을 느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정상적인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돌아온 표시로 볼 수 있다.

블룸이 겪는 많은 사건의 와중에서도 항상 그의 의식의 핵심은 물리였다: “그래서 그것은 되돌아 오는 것이다.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도로 마주치니. 돌아서 가는 길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지만 집으로 가는 데는 지름길인 거다”(U13. 1109-11). 그가 비록 마사나 거티에게로 이탈하며 물리의 부정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려 해도 항상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 가는 곳은 아내 물리이다. 그는 이제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블룸은 물리를 향한 굴복과 확신을 향한 끊임 없는 탐색을 계속해 나간다. 이것은 부정적 현실(no)에서 긍정적 현실(yes)로 향하는 블룸의 탐색과 노력을 보여준다. 그는 우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계속 물리에 대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 예를 들어, “태양의 황소”장에서 그에게 아내의 출산 중 아내와 아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에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문제가 제기될 때 그는 산모를 선택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내면서, 루디를 출산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물리를 생각하며 아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 cause he still had pity of the terrorcausing shrieking of shrill women in their labour as he was minded of his good lady Marion that had borne him an only manchild” (U14. 264-67).

외면적인 굴복의 행동과 함께 그는 물리에 대한 내면적인 긍정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자(Beja)는 불륨이 비록 많은 남편들이 그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른바, 소유욕이 강하고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기에 작품 속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슬픈 연민 혹은 체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불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타카”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Beja 262).

Equanimity?

As as natural as any and every natural act of a nature expressed or understood executed in nature by natural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his, her and their natured natures, of dissimilar similarity. As not so calamitous as cataclysmic annihilation of the planet in consequence of a collision with a dark sun. . . . As not more abnormal than all other parallel processes of adaptation to altered conditions of existence, resulting in a reciprocal equilibrium between the bodily organism and its attendant circumstances, foods, beverages, acquired habits, indulged inclinations, significant disease. As more than inevitable, irreparable. (U17. 2187-94)

불륨은 자신이 물리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평정(equanimity)을 유지하는 것은, 물리의 부정이 시커먼 태양과 부딪쳐서 행성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재난과 같은 일은 결코 아니라는 그의 인식의 결과로 본다. 그러면서 “이타카”장에서 그런 자신 행위에 대한 변명의 근거의 예를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어쨌든 물리의 부정 행위는 유아나 동물 학대랄지, 노상 강도나 절도 같은 것보다 더 비난받을 것도 아니며, 어떤 유기체가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 평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의 변화된 상태에 따라 적응해 가는 과정이므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불륨은 물리의 태도를 옹호한다. 위의 인용 글 중에서 한 개의 구문 속에 일곱 개의 자연(nature) 또는 그 형용사가 사용된다. 이는 불륨이 자신이 아내의 부정 행위를 합리화시키려는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물리의 최후의 “에스”가 그들 내외의 상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면, 여기서 그가 보여주는 ‘평정’ 이야말로 그가 아내에게 굴복하고 아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선결 조건임에 틀림없다.

종일토록 그의 마음을 괴롭혀 왔던 아내의 부정은 보다 넓은 전지에서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는 불가피하거나(inevitable), 환원 불가능(irreparable)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이다. 블룸은 또한 아내의 부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상식적인 사료(思料)들을 제시하며 인간이 처한 당면 상황 속에 스스로 몸을 맡겨 버린다. 그는 따듯하고 풍만하며 약속과 안락으로 충만된 물리의 양 궁둥이로 대표되는 동과 서의 양반구(terrestrial hemispheres)인 세계를 존경한다.

Satisfaction at the ubiquity in eastern and western terrestrial hemispheres, in all habitable lands and islands explored or unexplored (the land of the midnight sun, the islands of the blessed, the isles of Greece, the land of promise), of adipose anterior and posterior female hemispheres, redolent of milk and honey and of excretory sanguine and seminal warmth, reminiscent of secular families of curves of amplitude, insusceptible of moods of impression or of contrarities of expression, expressive of mute immutable mature animality. (U17. 2227-36)

그는 아내의 부정과 타협하면서 그녀의 육감적 온기 속에 동물적 안정을 추구한다. 물리는 남편의 전도된 ‘다기’(polymorphous)의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육체를 제공한다. 그것은 ‘약속의 땅’(The Promised Land), 넘치는 ‘젖과 꿀’의 향내를 풍긴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확신과 휴양을 담은 풍요로운 상징이다.

“He kissed the plump mellow yellow smellow melons of her rump, on each plump meloneous hemisphere, in their mellow yellow furrow, with obscure prolonged provocative melonsmellonous osculation.” (U17. 2241-43)

풍만하고 원숙한 노란색의 향기가 나는 수박형 엉덩이에 키스하고, 몽롱하고 지속적이며, 자극적인 수박 냄새나는 접촉 후에 블룸은 그녀에게 느끼는 만족 이후의 기분을 보여준다. 그녀의 포동포동한 수박형의 반구에 주어지는 계시 또한 이성적(heterosexual) 교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족 속에 그를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방황과 아내의 부정을 통한 정신적 성숙에 의하여 물리를 향한 완전한 굴복의 수준에 와 있다. 마침내 그에게는 물리의

한없이 수용력 있고 포용력 있는 대지와 같은 육체에 대한 마지막 탐사만 남은 것이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주제의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데는 물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녀도 불륨을 향한 자신의 긍정적인 굴복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오딧세우스(Odysseus)와 페넬로페(Penelope)를 나타내는 불륨과 물리에게는 새로운 왕국과 세계를 여는 긴 여정 후에 맞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10년간 단절되었던 완전한 성적 관계를 향한 대 여정이 마지막 완성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륨은 물리의 곁에 눕는다.

"In what posture?

Listener: reclined semilaterally, left, left hand under head, right leg extended in a straight line and resting on left leg, flexed, in the attitude of Gea-Tellus, fulfilled, recumbent, big with seed. Narrator: reclined laterally, left with right and left leg flexed, the indexfinger and thumb of the right hand resting on the bridge of the nose, in the attitude depicted in a snapshot photograph made by Percy Apjohn, the childman weary, the manchild in the womb." (U17. 2311-18)

불륨은 그의 머리를 침대 발치에 두고 어색하게 태아의 상태로 눕는다. 여기에서 물리는 대지의 어머니 Gea-Tellus격이다. 잠에 떨어지는 불륨은 하루의 일과에 지친 그리고 아침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결혼의 침상으로 되돌아 온 중년의 남편이요, 인생의 여로에 지친 그리하여 그의 원죄의 자궁 인양 되돌아온, 시기 적절하게도 유년 시절에서 성인으로 뻗은 인간 본질의 장본인이다. 그는 '피로에 지친 성인 남아, 자궁 속의 남아 성인'을 위한 자궁의 안전을 재창조하는 평화 속에 휴식한다. 물리는 태양의 이글대는 그리고 끓는 열에 의하여 비옥화된 대지모(Earth-Mother)이다. 그녀는 아기 불륨을 보호하는 우려와 염려로서 대한다. 모성애는 그 것의 본질상 완전히 영속적인 속성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진리다. 스티븐도 모성애는 무조건적이며 그것은 수행과 활동을 떠나 깊고 부동의 개인적 신념의 산물인 것이다. 인도주의적 순수 아가페처럼 그리스도의 자선의 이상처럼, 모성의 애정은 영원을 향한 것이며, 무비판적이다. 그 것은 행함(doing) 보다 오히려 존재(being)의 의미를 띤다. 그리하여 그것만으로 지상에서 성스러운 선행과 가장 밀접한 것이다. 여기 모성애의 진리에 대

한 강조는 대지모로서의 물리의 불륜을 초월한 남편에 대한 충실에 두고 있다. 물리의 내적 독백에서도 드러나듯, 물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충실하며 모든 사고의 귀착점이 남편으로 향한다. 그녀는 보일런과 성적 유희를 즐기고 있긴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정신적 자양을 위해 호우드(Howth) 언덕의 위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간다. 이점에 있어서는 블룸도 물리와 같다. 그는 어려움과 방향이 있을 때에 물리처럼 자신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실행했던 추억의 장소인 호우드 언덕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된다. 그들의 갈등과 불모의 부부 관계가 10여 년이 지속되었어도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어주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커다란 추억이 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호우드 언덕의 추억은 서로에게 굴복하고 서로를 긍정하며 확신을 가졌던 기억을 회상케 함으로써 서로에게 굴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화해를 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그들의 위대한 호우드 언덕에서의 사랑의 추억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사랑의 시기를 여는 천국으로 향하는 열쇠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블룸은 하루 동안의 대장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잠들고 있다. 비록 하루의 여정이었지만, 그의 여정은 천국을 향한 연옥에서의 연단 마냥 그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들판에서 헤매며 인생의 모든 고통과 피로움을 느끼고서 마침내 자신의 구원에 이른 리어왕에 비유할 수 있으며, 수십 년간의 고통의 항로 중에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온 오딧세우스 격인 것이다. 피곤에 지친 블룸이 찾아 든 곳은 다름 아닌 오늘 자신의 아내 물리와 보일런이 정사를 벌였고 보일런의 정액이 여전히 묻어 있던 바로 그 침대이다. 이 침대에 들어온 블룸의 행위는 아내 물리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녀에 대한 굴복의 행위이며, 그녀의 존재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화해의 한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성적 교접의 순간은 다가왔다. 완전한 부부로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부부의 완전한 사랑을 통한 서로를 향한 굴복과 긍정적인 화합은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내에게 내일 아침을 준비시키면서 위축되지 않은 부부의 한 쪽인 되살아난 남편의 권위를 보이는 행위는 물리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며 내일은 정상적인 남편으로 돌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블룸의 변모된 모습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VI

몰리는 블룸과의 소외된 부부생활에서 상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일런과의 관계에서 찾게 된다. 우선 그녀는 남자에게 주도권을 쥐려는 기질과 함께 남편에게 굴복 당하고 싶은 본능을 가진 여자의 한 전형이다. 그러나 블룸은 과거에 호우드 언덕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남자다운 행위를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약해 보이는 남편에게 굴복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쥐어 온 몰리는 보일런에게 굴복의 행위를 보여준다. 몰리 역시 굴복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보일런과의 육체적 관계를 가진 후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으로의 자신의 존재를 다시 찾게 된 몰리는 이제 남편과의 확신을 향한 긍정적 탐색을 시작한다. 우선 몰리는 단순히 성적으로는 왕성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세련되지 못한 보일런을 통하여 남편을 다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찾는다. 보일런에게서 성적인 만족감을 가진 후에 몰리 자신이 일순간 그에게 느꼈던 굴복의 행위는 자신만이 갖게 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간에 서로에게 같이 보여주어야 할 굴복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보일런에게 마음이 멀어진 몰리에게 이제 남편 블룸이 자리잡게 된다. 보일런과의 부정한 관계를 암암리에 인정해 준 남편은 자신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굴복을 보여준 것이며, 또한 남편의 그와 같은 관대함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배려로 여기면서 자신도 블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즉 두 부부간의 화해를 향한 탐색이 서로의 배려로 인한 굴복과 긍정적 확신으로서 드디어 대 화해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울리시즈』의 중국인 “피넬로피”장에서 몰리는 긴 독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굴복과 확신을 나타내는 화해의 완성으로서 “예스”를 거듭 반복하고 있다.

몰리는 보일런과의 관계에서 근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성적인 만족을 하였다. 지구로 상징되고 있는 그녀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불모의 것은 아니다. 때는 봄이었으며 몰리는 봄을 좋아했다: “나는 봄이 되면 언제나 그와 같이 되어 버린답니다”(U18. 782). 그리고 그녀는 이제 생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블룸이 늦게 들어오면서 몰리 자신이 카드 점을 쳤을 때 예고된 젊은이 스티븐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이가 오늘 아침 트럼프 카드에 나타났다 내가 트럼프를 펼쳐 점을 쳐봤을 때 말이야”(U18. 1314-15). 그 젊은

‘교수’(professor)가 그녀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 주면서 그와 루디의 연상을 이룬다.

헤이먼(Hayman)은 블룸의 뜻하지 않은 아침 식사 요구가 물리로 하여금 그들의 결혼과 그들이 하나의 부부라는 사실을 갑자기 다시 느끼게 해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 과정은 처음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그들의 영원한 관계의 재인식으로 나아가면서 물리의 생각에 갑작스런 반전을 가져왔으며, 블룸을 향한 독자들의 태도 변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Hayman 122). 블룸의 아침 준비에 대한 요구는 비록 그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아침을 부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탁이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기에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남편의 역할에 대한 태도의 큰 변화를 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것이 아닌 남편과의 함께 느낄 오르가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블룸의 존재를 자신이 부정행위로 침범했지만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인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 동안 남편 블룸에게 가졌던 굴복하지 못하고 저항했던 것들이 결국은 블룸에게 굴복하고 그를 긍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한 탐색이었으며,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엘만(Ellmann)은 호머(Homer)가 오딧세우스의 귀향 후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함께 침대에 들게 한 반면, 조이스는 현재의 성적 관계를 실현하는 묘사대신, 물리로 하여금 과거의 에로틱한 장면들을 생각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플로베르(Flaubert)가 작가들에게 말한 이른바 ‘ne pas conclure’(결말이 없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조이스가 심중에 다른 결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엘만은 실제 『울리시즈』의 “페넬로피”장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어 “이타카”장이 실제적인 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페넬로피”장이 평범한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형식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페넬로피”장은 “Yes”의 대문자 “Y”로 시작하여 완전한 마침표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울리시즈』는 첫 글자가 “Stately”로 시작하여 “Yes”로 끝나고 있다. 조이스는 아마도 “S”를 남성 문자로 여기고, “Y”를 여성 문자로 여기었던 것 같다. 그런데 첫 단어 “Stately”와 마지막 단어 “Yes”가 “페넬로피”장에서는 “S”와 “Y”가 서로 역전되어 있다. 이것은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의 원을 만들고 이 원

은 영원(eternity)을 만들어 조이스 자신이 “페넬로피” 장을 가리켜 ‘This is the indispensable countersign to Bloom’s passport to eternity’ 라고 한 자신의 말을 뒷받침 해주듯 블룸이 물리에 의하여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원성을 나타내는 의미의 하부 원들이 있다(Ellmann 1967, 104-11). 1장에서 3장까지는 스티븐 디덜러스의 여정으로서 『율리시즈』에 대한 조이스 자신의 도식(schema)에 따라 “텔레마키아(Telemachia)”부로 부른다. “텔레마키아”부의 시작은 “S”로 시작하여 “P”로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인 “노스토스(Nostos)”부에서도 시작은 “P”로 되어 끝은 “S”로 마친다. 이 또한 작은 원을 만들어 전체 작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그 원안에 각자 작은 원들이 있어서 이것은 『율리시즈』를 영원한 숫자이며 무한대의 의미인 ‘∞’의 모습을 갖게 하고 있다. 블룸과 물리가 결혼한 연도도 1888년이며, 블룸이 물리의 생일 선물로 사준 양귀비꽃도 8송이였다. 『율리시즈』 전체 18장도 각각 앞 9장과 뒤의 9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8자를 옆으로 누운 ‘∞’의 형이다. “페넬로피”장에서 우리는 88개의 “yes”의 사용을 볼 수 있다. 또한 “페넬로피”장 자체도 물리의 생일이 9월 8일의 8과 같은 전체 8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페넬로피”장의 8개 문장 중 앞 4문장은 성숙한 물리를 그리고 나중의 4개 문장은 젊었던 물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물리의 독백에 의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옆으로 누운 8자 즉 ‘∞’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젊었던 물리의 기억과 성숙한 현재의 물리의 생활이 서로 교류하고 환원되면서 영원한 숫자(∞)를 상징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의 사용은 “페넬로피”장에서의 물리는 영원한 대지의 상징이며,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것과 함께 이 작품이 영원한 것이 되길 바라는 조이스의 의도되고 계획되어진 계산으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그가 8이란 숫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그의 작품속에 심어 두고 8이란 숫자를 영원의 숫자로 만들고 싶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원형(圓形)을 유지하며 『율리시즈』 전체를 원형들의 모습을 갖추어 작품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는 조이스의 의도가 가장 작게 묘사되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예스”이다. “Yes”는 여성의 “Y”로 시작하여 남성의 “S”로 끝나면서 여성으로부터 시작한 생명이 다시 남성에 의하여 잉태되는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남성과 여성의 성적 화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페넬로피”장은 이와 같은 “예스”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로 각각의 개별적인 “예스”의 사용도 그와 같은 큰 의미를 보충해 주며 뒷받침 해주고 있다. 조이스는 “yes”를 가리키며 앞서 인용한 버전에게 쓴 편지에서 ‘with the female word, yes. It turns like the huge earth ball slowly surely and evenly round and round spinning’라고 하였다. 즉 “예스”의 여성적 의미와 함께 “예스”는 구(球)의 상징으로서 앞서 언급한 Gea-Tellus가 되는 것이다. Gea-Tellus는 포용력을 갖고 생명을 잉태하며 비옥하다. 따라서 인식하지 않으며 가식적이지도 않다.

브라운(Brown)은 블룸이 “나우시카”장에서 거티와 가졌던 마스터베이션과 함께 보일런과 물리의 관계도 현대적인 의미의 onanism이라고 말한다(Brown 68). 그런 주장은 보일런과 물리가 서로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한 성적인 행위를 한 측면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성교 중절 즉, 질의 사정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he hasn’t such a tremendous amount of spunk in him when I made him pull out and do it on me considering how big it is so much the better in case any of it wasn’t washed out properly the last time I let him finish it in me nice invention they made for women for him to get all the pleasure” (U18. 154-57)

물리는 자신의 몸속에 사정된 정액을 잘 씻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일런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 밖에 사정을 하게 한 것이다. 그때 물리는 보일런의 정액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일런의 서너 번의 공략 중에 마지막으로 관계 때 자신의 몸 속에 사정을 하게 한 것이다. 그 사정은 물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우선 보일런의 정액이 많지 않아서 걱정도 덜 해졌지만, 그의 정액이 자신의 몸 속에 남는 것이 대해서 꺼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추측컨대 그녀의 생리 현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는 보일런과의 관계 후에도 임신 걱정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녀는 미나 퓨어포이(Mina Purefoy)가 갖는 매년의 임신을 경멸하는데, 물리가 퓨어포이부인을 경멸할 수 있던 것은 보일런과 이번 성관계에서 자신은 임신 가능성이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물리와 보일런의 관계는 비록 그 것이 물리에게 있어서는 블룸의 남자하고 갖는 실질적인 첫 번째 성행위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블룸이 거티하고 갖는 마스터베이션의 의미 이상의 더 큰 의미는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두 부부의 각각의 행위는 서로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며, 생명 창조의 행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두 행위 모두 도덕적인 의미로 죄로 볼 수 있다. 블룸과 몰리 부부의 서로에 대한 저항과 서로에 대한 화해를 위한 그들의 방황과 탐색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부부는 이런 경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인식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정신적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탐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몰리의 부정행위의 불모성 또한 보일런의 인격적인 패배와 함께 그들 부부의 새로운 화해를 위한 기본적 토대로 마련되고 있음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녀는 보일런을 본래 ‘야만인’(strange brute)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녀는 상상에 그려본 지적인 젊은 예술가 스티븐과 비교해 볼 때 보일런에게는 어떤 예의도 세련됨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 소녀 시절부터 항상 시를 좋아해 왔을 뿐 더러(U18. 1324), 블룸이 사 온 조그만 석고 조각품과 아름다움과 시(U18. 1351)를 아직도 음미할 줄 아는 몰리 자신과, 구애 시절 바이런(Byron)처럼 보이려고 무척 애쓰던 블룸(U18. 209)에 비교할 때, 시와 캐비지도 구별 못하는 무식꾼이라는 그녀의 보일런에 대한 힐책은 곧 자신과 블룸 혹은 스티븐이 속한 교양 있는 세계로부터 보일런을 구분 짓고 있다. 그런데 그녀의 보일런에 대한 부정적이고 멸시적인 태도의 시작은 ‘no’ 이다. 또한 연속되는 글에서 연속하여 ‘no’와 ‘nor’ 그리고 ‘know’로 이어지고 있다. “No”는 “yes”와 반대적 의미를 가진다. 보일런과의 육체적 결합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의 화합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no”라는 단어가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즉 “예스”가 의미했던 굴복의 자세, 그것은 두 남녀의 화합과 긍정으로 가는 기본적인 시작의 모습이다.

엘만은 비유하길 몰리가 지구라면 블룸은 태양이라고 하였다. 대신 지구는 자신의 움직임에 의하여 태양의 빛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몰리는 블룸의 모든 약점과 잘못을 철저하게 알고 있으며, 블룸의 몇 가지 장점도 알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리오던 부인과 같은 노인에게 친절하며,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갖추고 있으며, 젊었을 때는 미남이었으며, 매트에 올라올 때는 발을 씻고 올라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그의 심미주의, 그의 사회주의, 그리고 그의 정치적 인종적 박해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등도 잘 알고 있다. “페넬로피”장의 후반부로 가면서 몰리는 서서히 남편 블룸

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륨의 뛰어난 점을 서서히 인식하여 간다. 보일런과 비교하건대 자신의 남편이 더 완전한 사람이며 자신에게도 남편이 갖길 원하는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이제 그녀는 보일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물리는 지구로서 생물학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예에 속하는 불륨을 더 완전한 종(species)으로 선호하게 된다(Ellmann 1967, 107).

“에스” “이타카”장에서 불륨은 태양 중심적(heliocentric) 견해를 보여주고, 물리는 지구 중심적 즉 천동설적인(geocentric)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함께 시차각(the angle of parallax)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날에 바람직한 삶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함께 모여지고 있다. 누구라도 그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 합해져서 그들은 바람직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들은 지구로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며, 성장하고 그리고 완전한 육체적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간 상호간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다. 우리들의 삶이 서로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굴복과 서로의 긍정에 의하여 서로에게 확신하고 화합하는 메시지는 “에스” 속에 농축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주인공들의 방향과 저항도 마침내 물리에게 와서 그들의 삶의 대지를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적으로 만족한 완전한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명을 잉태하고 그들이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의 육체적 결합과 서로의 긍정에 “에스”에 의한 영원성의 확립이다.

바드즈(Barthes)는 여성의 최고의 순간은 생리(menstruation)라고 말한다(Barthes 148). 즉, 여성이 정기적으로 생리현상을 갖는 것은 여자를 자연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이며, 그것으로 인해 여자가 남자와 대조가 된다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와는 달리 위기(crisis)나 갱생(renewal)이 없이, 무의미하게 피부만 벗겨지고 소화기적 배설을 할뿐이며, 또 남자는 영속적인 시간보다는 일상적인 일에만 참여한다. 남성의 생리는 우주의 대요소들의 변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 여성의 생리 현상을 위기와 갱생을 경험하는 자연현상으로 찬양하고 있음은 물리의 생리가 결국 자신의 위기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태어나서 불륨과 새로운 부부 관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밝은 그들의 장래를 추측할 수 있는 주제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스콧(Scott)은 ‘menstrual fluids seem to be part of the attraction of the “cunt”’(Scott 132)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생리혈(menstrual fluids)이 남성에게는 성적인 매력의 대상으로서 “cunt”에 대

한 성적 매력을 유도한다고 본다. 이는 물리의 생리가 그녀에 대한 성적 관심과 함께 곧 있을 불륜과의 성적 결합의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리는 “페넬로피”장 말미에서 16년전 불륜과 만병초가 만발한 호우드 언덕에서 남편과의 서로간에 이해하던 장면을 그린다. 그녀는 바다와 육지가 함께 뒤섞여 장미 속에 수영이라는 근사한 장면을 만들어 낸다(U18. 1557-63).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한대로 세상의 그리고 인생의 선(善)에 대한 물리의 긍정이다. 물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곳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던 에덴 동산이 된다. 이곳에 있는 모든 꽃들과 짐승들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냄새와 바위들 마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물리의 생각은 아름다운 그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호우드 언덕이 그들 부부의 삶의 시작이 되는 성지로서 성화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녀와 남편의 만남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위한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곳은 또한 물리의 인생에 대한 긍정의 모습으로의 대전환이다. 과거의 아름답던 기억과 그녀가 상상하는 아름다운 낙원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긍정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된다(U18. 1572-74).

불륜도 “레스트리오니언즈”장에서 회상했던 seedcake에 대한 의식으로 돌아왔다. 엘만에 따르면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도 이브가 아담에게 물리가 불륜에게 건네주듯이 seedfruit을 건네준다고 한다. 또한 이 것은 성 오거스틴(St. Augustine)이 부르는 바 ‘행복한 결점’(felix culpa)이다(Ellmann 1972, 108). 하지만 불륜은 이것을 ‘육체적 행복’(copula felix)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닌 자체로서의 구원을 갖기 때문이다. 단테의 ‘Earthly Paradise’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물리와 불륜은 그들의 낙원에서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이브가 되어 이제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의 행위를 갖고서 모든 잘못과 죄를 서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용서받는 것이다.

헤이먼(Hayman)은 물리의 독백과 불륜이 “씨시”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한다. “씨시”장에서의 불륜은 물리와 밀리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의 연장이며, 물리는 자신의 독백에서 과거의 젊었던 자신과 현재의 성숙한 자신간에 화해를 시도하며, 과거의 불륜과 현재의 불륜

을 재발견하여 그 가운데서 인간애와 인간간의 관계를 정립하려 하고 있다. 좀 더 저급한 수준에서는 몰리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와 굴복적인 태도의 이중적인 성적 충돌간에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륨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씨시”장의 말미에서 일어나는 루디에 대한 에피퍼니(Tindall 11), 그리고 “페넬로피”장에서의 최종적 긍정은 이 작품의 거대한 사건들 속에서 기념비적인 사건들은 비록 아니지만, 불륨과 몰리는 밝은 빛을 향하여 지나 긴 터널을 지나온 것이다(Hayman 132). 이제 불륨과 몰리 부부는 자신들이 서로에게 굴복하지 못하여 서로를 긍정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긴 방황과 고난과 경험을 치른 후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며 서로의 한계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몰리의 독백의 시작이 불륨의 달라진 변화를 상징하는 아침 준비 부탁 때문에 “에스”로 시작하여 불륨에 대한 굴복과 긍정으로 인하여 몰리가 갖는 인생의 확신을 나타내는 “에스”로 마감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두 부부의 애정 행위와 육체적 교접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성적 교접으로서의 “에스”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V

라덴슨(Elisabeth Ladenson)이 지적하듯이 조이스가 프루스트(Marcel Proust)를 만났을 때, 그들 간에 ‘No’라는 단어가 대화의 주를 이루고 있다(Ladenson 147). 우선 조이스가 버전에게 말했던 내용을 살펴보자.

Our talk consisted solely of the word “No.” Proust asked me if I knew the duc de so-and-so. I said, “No.” Our hostess asked Proust if he had read such and such a piece of *Ulysses*. Proust said “No.” And so on. (Budgen 1956, 539)

그리고 콜럼(Padaric Colum)의 글속에서도 두 대 문호들의 대화의 내용을 엿볼 수 있다.

Proust: Ah, Monsieur Joyce . . . You know the Princess. . .

Joyce: No, Monsieur.

Proust: Ah, You know the Countess. . .

Joyce: No, Monsieur.

Proust: Then you know Madame. . .

Joyce: No, Monsieur. (Colum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더슨(Magaret Anderson)의 『*My Thirty Year's War*』에서 그녀는 이 두 문호간의 특별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Some friends were eager that he and Marcel Proust should meet. They arranged a dinner, assured that the two men would have much to say to each other. The host tried to start them off.

I regret that I don't know Mr. Joyce's work, said Proust.

I have never read Mr. Proust, said Joyce.

And that was the end of their communication. (Anderson 245)

이 두 문호는 서로 간에 상존하고 있는 경쟁 의식과 자존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 간의 대화는 시종 'no'라는 단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두 대 문호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간에 주고받을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만난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서로에 대한 묵시적인 경멸이 그들의 만남을 예상 밖으로 불편하고 이상한 관계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대 문호들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을 때는 'no'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굴복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 결과 그들에게 화합은 없었으며 서로의 발전도 없는 무관심과 경멸감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울리시즈』에서 제시되는 “예스”는 기본적으로 물리에 의하여 가장 빈번히 사용되면서, 에로틱한 의미의 상대에 대한 굴복, 그리고 수용 그리고 갈등의 종말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생의 시작은 남녀 사이의 굴복과 긍정에 의하여 시작되듯이, 그리고 모든 인생의 핵심이 남녀간에 존재하는 일이듯이, 남녀간에 성적인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예스”는 이제 전체 『울리시즈』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조이스의 메시지인 것이다. 따라서 “예스”의 성적인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는 상대방에 대하여 굴복을 보이는 행위이다. 여기서

의 굴복은 굴종과는 다른 것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함께 맞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굴복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 사이에 화합과 희망이 주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에게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율리시즈』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는 결국 “예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대)

인용 문헌

- Barthes, Roland. ed, *Michelet*. 1954.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1987.
- Beja, Morris.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Boyle, Robert. *James Joyce's Ulysse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 Los Angeles · London, 1977.
- Brivic, Sheldon R. *James Joyce: From Stephen to Bloom*. In *Psychoanalysis and Literary Process*, ed., Frederick C. Crews. Mass: Winthrop Publishers, 1964.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Further Recollections of James Joyce”, *Partisan Review*, 23 Fall 1956.
-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Why Molly Bloom Menstruates*, James Joyce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ited by William M. Chace.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67.
- Fox, Cheryl *Absolutely: Redefining the Word Known to All Men*, JJQ, Vol.29,

Number 4, Summer, 1992.

Hayman, David. *The Empirical Molly, in Approaches to Ulysses*, Ed. Thomas Staley and Bernard Benstock.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Ladenson, Elisabeth. *A Talk Consisting Soley of the Word "No": Joyce Meets Proust*, JJQ, Vol. 31. Spring 1994.

Levin, Harry. *James Joyce: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Faber, 1971, reprint of 2nd edn, 1960.

Scott, Bonnie Kime. *Joyce in Context*, Edited by Vincent J. Cheng and Timothy Mar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The Noonday, 1959.

Wallace, Moira. *Joyce: The Return of the Repressed*, Ed. Susan Stanford Friedman.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and London,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Yes” in *Ulysses* of James Joyce:
The Submission and the Affirmation for the Reconciliation

Gim, Joo-sur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Yes” in James Joyce’s *Ulysses*. Joyce himself says that Yes means the cunt of a woman, an organ whose meaning is associated with sex. He also employs it as embodying woman’s ‘acquiescence’, ‘relaxation’, and ‘the end of resistance’. The word Yes certainly has more implied meanings than Joyce intends it to do. It has such various meanings as ‘submission’, ‘affirmation’ and ‘conciliation’ to the opposite sex. The sexuality between man and woman can consequently have an effect on their relationships as a whole. And that can be a crucial motif which allows a person to find out his own identity.

The main characters in *Ulysses*, Leopold Bloom, Molly and Stephen Dedalus, have shown us the conflicts with their own opposite sex. The main sources of their conflicts or wanderings come from the lack of submission, affirmation and conciliation to the opposed sex. One of the main themes of *Ulysses* is the efforts of the major characters to try to escape from the conflicts or wanderings caused by not having a conciliation with the other sex. This is the crucial message of ‘submission’, ‘affirmation’, and ‘reconciliation’ which the word Yes gives us.